

〈일반논문〉

## 인종주의와 코로나 바이러스 I\* - 미국사에서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김 호 연\*\*

〈목차〉

- I. 왜, 인종주의인가?
- II. 서구의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인종주의
- III. 미국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 IV. 학문적·실천적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 V.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종주의, 그리고 우리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심화·증폭되고 있는 인종주의(racism)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국내 인종주의 연구 성과에서 시사점을 얻고,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실천적 담론 확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서양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연구자들의 성과를 메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인종주의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2장에서는 인종주의가 서구의 근대적 기획으로서 이데올로기이자 하나의 정치체제였다는 사실을, 3장과 4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종주의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미래인문학융합학부 부교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이후의 연구 과제를,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인종주의에 맞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인종 관련 연구자들을 향한 감사와 더욱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해야할 지적 책임을 요청하고, 모두의 좋은 삶을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 주제어

미국, 인종, 인종주의, 근대,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코로나 바이러스

---

## I. 왜, 인종주의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심화·증폭되고 있는 인종주의(racism)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기존의 인종주의 연구 성과에서 시사점을 얻고,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실천적 담론 확장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연구가 모두의 좋은 삶을 숙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며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국적자나 확진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심화되고, 폭력으로까지 치달고 있다.<sup>1)</sup> 심지어는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실험을 하자는 주장까지

---

1) 「쏟아지는' 유럽발 코로나19 인종차별 '후기」, 『팜뉴스』, 2020.04.23.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63>.

나왔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혐오 현상이 일고 있다.<sup>3)</sup> 더욱이 우리는 이미 예멘 난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고,<sup>4)</sup> 우리의 산업구조가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sup>5)</sup> 인종주의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지 못한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범주들 가운데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된 범주로 계급, 성, 인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계급은 서구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범주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과 인종은 최근에야 그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이후가 되어서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계급 중심의 불평등 담론과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급, 인종, 그리고 성이 착종되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해로 발전해왔다.<sup>7)</sup> 이는 우리가 마주한 차별적인 현실을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양의 흐름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성에 비해 인

2) 「프랑스 의사들 “아프리카서 백신 테스트하자”...더 노골화하는 인종차별」, 『경향신문』, 2020.04.05.

<https://news.v.daum.net/v/20200405165704062>.

3)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립동 할린 혐오」, 『아시아경제』, 2020.04.2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0414902197>.

4) 이재호, 『낮선 이웃』, 이데아, 2019.

5) 양혜우, 「위계적 인종주의를 태동시킨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그 대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019.6, 1337~1348쪽.

6) 이 글은 다음에서 전개한 논지를 저본으로 확장된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김호연,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폭력과 그 아픔에 관한 이야기」, 『역사연구』 38, 2020, 201~221쪽.

7) 미국에서의 노예폐지론에 대한 세 측면의 해석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손세호, 「노예폐지론의 인종·성·계급: 해석의 역사」, 『미국사연구』 10, 1999, 1~28쪽.

종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는 우리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 제국주의 시대에 전개된 백인에 의한 식민지배와는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인종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으레 나치(Nazi)의 유대인 학살(Holocaust)이나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미국의 흑인 노예제 같은 것을 떠올리곤 한다. 인종 문제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sup>8)</sup>

이 글에서는 인종 문제가 우리의 당면 문제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먼저 기존의 국내 인종주의 연구들을 고찰해볼 것이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증폭된 배외감정의 실체와 역사성 그리고 정치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혐오의 문화가 인종과 착종된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의 연계 속에서 도출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위드 코로나(with coronavirus) 또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virus) 시대의 새 질서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인종주의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고, 주제와 대상을 넓히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크게 보면, 인종과 인종주의 개념 및 기원을 둘러싼 연구들<sup>9)</sup>과 인종주의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과 저항에 대한 연구들<sup>10)</sup>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연구 성과를 집약해보

8) 찰스 W. 밀스, 정범진 옮김, 『인종계약』, 아침이슬, 2006, 248~249쪽.

9)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일조각, 2011, 341~380쪽; 박진빈, 「인종주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역사비평』 129, 2019, 293~317쪽.

10) 김인선,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1, 2015, 1~35쪽; 김인선, 「인종 간 성관계와 성의 정치학: 윌리 맥기 사건(1945-1951)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7, 2018, 175~211쪽; 김인선, 「흑인 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1856년

면, 인종은 생물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종교나 문화가 착종된 사회적·인식론적 구성물이고, 인종주의는 이런 차이를 차별로 등식화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체제이며, 이는 기독교 문명의 확산 및 자본주의 형성과 조응하면서 백인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했던 서구의 근대적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는 인종주의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인종주의는 특정 국가 내부 동학과 인종-계급-성-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의 상호연관 속에서 파악할 때 그 실체가 더욱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그간의 국내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인종주의 이해의 핵심 사안과 이에 기초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더 적극적인 학문적·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야기한 반세계화와 인종주의 국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전망의 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서양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종주의 연구를 진행해온 그간의 국내 연구 성과를 메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sup>12)</sup> 특히 3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효율

---

마가렛 가너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 2014, 1~38쪽; 김인선, 「흑인 노예의 주인 살해와 대항폭력: 1855년 노예 실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5, 2017, 179~215쪽;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미국사연구』 18, 2003, 159~185쪽; 황혜성, 「가려진 목소리: 할렘르네상스의 흑인 여성작가들, 『미국사연구』 11, 2000, 93~120쪽; 황혜성,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포스트식민박물관의 음영(陰影), 『미국사연구』 43, 2016, 217~252쪽; 황혜성, 「다시 보는 부커 워싱턴과 윌리엄 두보이즈: 흑인 신보수주의의 등장에 비추어 본 워싱턴 인종정책, 『미국사연구』 44, 2016, 67~102쪽; 황혜성,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 그들은 영원한 라이벌인가?, 『미국사연구』 14, 2001, 75~99쪽.

11)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인종주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역사비평사, 2019.

12) 필자는 의도적으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국내 학계의 연

적인 연구를 위한 현실적 필요와 가장 첨예한 인종 갈등의 역사가 접철된 미국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야말로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사 연구자들을 향한 감사와 더욱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해야할 지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 서구의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인종주의

인종주의란 무엇인가?<sup>13)</sup> 이는 우리가 인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고, 세계관은 사실에 앞서기 때문이다. 그간의 인종주의 연구들은 대체로 인종을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인종 분류의 기준이 생물학적 표지, 특히 피부색이든 지리·문화·종교이든, 존재론적 상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재의미화되면서 변형되어 온 카멜레온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sup>14)</sup> 즉 인구 집단을 인종같은 무리로 묶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고, 인종 분류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패턴을 반영

---

구는 양질 모두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의 성과를 우리의 담론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외국 학자의 시선에만 갇힐 까닭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이미 국내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참고하여 새로운 연구를 도모하고 있는 학문 영역들이 꽤 많다. 이는 동료 연구자들의 노고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13) 2장의 내용은 다음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김호연,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폭력과 그 아픔에 관한 이야기」, 206~209쪽.

14) Neil MacMaster, *Racism in Europe, 1870-2000*, New York: Palgrave, 2001, pp. 1~2.

하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차원의 분류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sup>15)</sup> 따라서 인종은 자연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16)</sup> 한 마디로, 인종은 없다.<sup>17)</sup> 이러한 인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면, 인종이란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 동학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만들어진 범주이고, 인종은 차이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 즉 인종주의에 의해 구성된 산물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설사 인종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그리고 저마다의 분류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지라도, 그 기초에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 종에 대한 인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종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 실재로서의 생물학적 존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이유로’ 사회적 범주로 재탄생하였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sup>18)</sup> 우리가 인종주의의 형성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과연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인종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신체적 특징에 따라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구분하고 인종 간의 불평등한 억압을 합리화하는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인종주의는 역사 속에서 크게 세 단계로 전회해왔다. 먼저 인종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다음으로 그 차이를 인종 집단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는 차이와 우열의 정치학으로 변질되며,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특정 인종 집단의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회 질서를 구축한다. 인간을 인종 집

15) 조너선 마크스, 고현석 옮김,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이음, 2017, 104~118쪽.

16) 배영수, 「인종주의」,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1419쪽.

17) 염운옥, 『낙인찍힌 몸』, 22쪽.

18)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347~348쪽.

단으로 나누고 집단 사이의 우열을 가정하는 근본 이유는 사회의 자원 분배와 부, 권력, 특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우열을 가정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인간을 등급화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反인간적이고 反도덕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런 견지에서 인종주의는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를 집단들 사이의 구분 짓기와 위계 결정의 준거로 활용하여, 타자로 설정한 집단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종주의는 복수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 그리스에서는 헬레네스(Ελληνες) 대 바르바로이(Βάρβαροι)라는 구도로 문명과 야만의 구별 짓기가 있었고, 이는 지리적·문화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세기 『예기(禮記)』에 변방 오랑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중세에는 서양의 경우, 종교를 기준으로 기독교인 대 非기독교인이라는 구별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한족 대 非한족의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구분배제의 근거가 되었다.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서양에서는 계몽주의-지리적 인종관-과학이 결부되어 인종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특유의 인종주의가 등장한 바 있다. 나치의 대학살 이후에는 생물학적 표지에 더하여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며 ‘ethnicity’같은 개념이 등장했다.<sup>20)</sup> 프랑스 철학자인 들라캉파뉴(C. Delacampagne)도 인종차별을 타자에 대한 증오의 다른 이름이고, 증오는 여러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면서, 인종주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sup>21)</sup>

그러나 인종주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불평등을 강조

19) 찰스 W. 밀스, 『인종계약』, 249~250쪽.

20) 배영수, 「인종주의」, 1424~1430쪽.

21)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하지현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예지, 2013, 14~16쪽.



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것을 인종주의라 칭하는 인종 환원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든 것을 인종으로 설명하려는 인종주의자들의 논리와 같아지는 역설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접근은 서양 근대의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폭력의 흑역사를 상대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sup>22)</sup> 이는 인종주의가 서양 근대의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극히 타당한 접근일 수 있다. 독일사 연구자인 나인호는 인종주의가 우발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양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근대사상 혹은 체계적인 근대 이데올로기였다고 본다. 그는 미국 역사가 모스(George Mosse)의 분석을 예로 들어, 인종주의는 광기의 우발적인 표출이나 편견의 산발적인 표현, 혹은 단순한 억압의 메타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스의 분석처럼, 인종주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독특한 구조와 담론 양식을 지닌 완전히 발달된 근대적 사상체계였다는 것이다. 즉 인종주의는 과학에 대한 믿음, 근대적 철학과 종교사상, 시민계급의 도덕, 민족주의 등 서양의 근대정신을 대표하는 주류 사조와 결합되어 있으며, 근대 서양인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근대 세계를 특징짓는 중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서양의 인종주의는 이미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19세기말 20세기 초 일본 등지를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수출된 문화상품으로 그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어 왔다는 것이 나인호의 주요 논지이다.<sup>24)</sup>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슨(George M. Frederickson)도 인종주의를 서구의 근대적 창안물이라고 본다. 그는 스페인의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의 유대인 개종 문제를 예시로 들며 인종주의가 16세기 초를 거치면

22)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13쪽.

23) 모스의 주장은 다음을 보라. George L. Mosse, *Toward the Final Solution: A History of European Racism*, New York: Howard Fertig, 1978, esp. ix.

24)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9~10쪽.

서 종교에서 혈통을 문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sup>25)</sup> 영국 사 연구자인 옴운옥은 인종주의는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 타자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가치 매기고, 증오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사회·담론적 구성물이고, 이는 서양 근대의 이데올로기였다고 본다.<sup>26)</sup> 미국 사 연구자인 황혜성도 인종주의를 19세기에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하여 탄생한 현대적 산물로 규정한다.<sup>27)</sup> 인종주의를 백인 지배를 위한 정치체계를 만드는 서구의 근대적 기획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기초하여 계급, 성, 인종 문제를 오래도록 연구해온 미국의 철학자 밀스(Charles W. Mills)는 현재 유럽-미국의 백인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특권은 다분히 인종적이고, 정치적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인종주의는 서구 백인이 지리적 팽창을 전개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하나의 정치체제이자 권력구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28)</sup> 알제리(Algeria)를

25) George M. Frederickson, *Racism: A Short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26) 옴운옥은 이른바 인종론(racialism)과 인종주의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17-18세기에 등장한 인종에 관한 인류학적·미학적 담론은 인종론이라 부르고, 인종론이 제공한 재료들로부터 합성된 이데올로기를 인종주의라고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런 구분을 수용할 경우, 인종주의는 다분히 근대적 현상, 특히 19세기 이후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옴운옥은 인종주의를 백인의 유색인종에 대한 식민지배와 우월의식에 바탕을 두고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난 19세기 중반의 고전적 인종주의, 기존의 인종주의에 사회 경제 종교 문화적 요인이 더해진 개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20세기 후반의 인종주의, 그리고 최근 인종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에스니시티(ethnicity)와 관련한 신인종주의(new racism) 또는 문화적 인종주의(cultural racism), 인종 없는 인종주의(racism without racism)라고 불리는 21세기적 인종주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옴운옥, 『낙인찍힌 몸』, 5~9쪽.

27) 황혜성, 「인종주의」, 김영한 엮음, 『서양의 지적 운동 II』, 지식산업사, 1998, 254~255쪽.

28) 찰스 W. 밀스, 『인종계약』, 14~15쪽.

중심으로 프랑스의 식민주의(colonialism)를 연구한 맥마스터(Neil MacMaster)는 서양 근대의 기획으로 탄생한 인종주의가 1870년대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본다. 그는 크게 다섯 가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화의 맥락에서 인종주의를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첫째,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촉발된 보수적 반동 및 정치에서의 반자유주의적 흐름, 둘째, 군국주의와 제노포비아적 민족주의의 출현, 셋째,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와 식민주의의 확산, 넷째, 대중 운동 조직의 확산, 다섯째, 대중 미디어를 통한 인종주의 관련 텍스트의 확산과 여론 형성 등이 그것이다.<sup>29)</sup> 그의 분석은 근대를 거치면서 탄생한 인종주의가 어떻게 생물학적 인간 종을 사회적 범주로서 안착시켰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종주의는 ‘서구-근대-인종-이데올로기-정치체제-대중화’라는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그것이 근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세계적 차원의 백인 중심의 구조적인 불평등 지배 체제의 기원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인종주의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기독교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형성이다. 먼저 기독교적 전통은 성경, 즉 창세기 9장 20절-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함(Ham)의 이야기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된 함으로 상징되는 검은 인종을 전형적인 저주를 받는 인종으로 인식하고, 훗날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sup>30)</sup> 더불어 서구에서 제시된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기

29) Neil MacMaster, *Racism in Europe, 1870-2000*, pp. 20~27.

30) 당시 노예주들은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심적 부담감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흑인 인종주의에 대한 통사적 이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진된

독교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교와 야만은 비합리성의 증거로 인식됨으로써 인종과 피부색과 차별적 지위는 백인들의 유색인종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덕률로 기능했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런 분석은 유대인 개종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인종이란 단어는 ‘raza’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는 스페인에서 혈통과 친의 얼룩진 부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5세기 중엽 이후 이슬람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개종이 되지 않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용되었고,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혈통이 연결되는 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원주민 개종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sup>32)</sup> 결국 인종이란 기독교의 전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종주의의 또 다른 기원으로 제시되는 것은 종교-혈통이 연동된 새로운 인종 개념의 형성과 흑인이 연결됨으로써 실현된 노예제와 자본주의 발전이다. 미국사 연구자인 박진빈은 기독교 못지않게 인종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자본주의라고 본다. 유대인, 이슬람, 흑인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던 배타적인 혐오사상이 뚜렷한 인종주의로 발전한 것은 북아메리카 식민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의 식민지정복은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기여했고, 이는 식민지의 금과 은을 필두로 한 광물 자원, 인간 노동력, 그리고 농업 생산품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탄생은 확실히 인종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 이주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는 미국 혁명의 가장 중

---

논문 가운데 다음의 분석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형인, 「미국 흑백 인종주의의 특성과 변천 - 노예제도부터 민권운동까지 -」, 『서양사론』 70, 2001, 155~185쪽, 특히, 159~160쪽.

31) 찰스 W. 밀스, 『인종계약』, 172~173쪽, 45~49쪽.

32) 염운옥, 『낙인찍힌 몸』, 25~26쪽; 박진빈, 「인종주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297~298쪽.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인으로서 영제국에 대항했던 혁명 세력은, 그러나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노예제도를 합법화했다. 미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예제에 의존한 농업경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제를 인종주의의 경제적 근원으로 파악해야한다는 주장, 즉 인종주의의 발전에서 자본주의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sup>33)</sup>

‘기독교-인종주의-노예제-자본주의’의 연결고리는 분명 근대적 현상이고, 이는 세계화라는 국면을 수반했다. 달리 말해, 정체체제이자 권력구조로서의 서구 인종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배와 착취라는 강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의 진보와 나머지 세계의 불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윌리엄스(Eric Williams)의 『자본주의와 노예제』(Capitalism and Slavery)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스는 유럽 진보의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유럽의 그것이 제국의 식민지 착취와 플랜테이션 노예제에서 얻는 수익, 식민지 회사들이 만들어낸 부, 신세계의 개척이 제공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자극에 의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를 유럽의 균질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사 유럽 내에서 국가간 경쟁과 전쟁이 지속되었더라도 비유럽 세계에 대한 초 유럽적 착취에 기초한 유럽 공동의 정체성은 많은 경우, 인종 지배를 통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실체로서의 유럽이라는 의식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발생시켰다는 것이다.<sup>34)</sup>

정리하자면, 인종 담론은 근대 이전 사회에서도 존재했지만, 인종주의

33) 박진빈, 「인종주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299~301쪽.

34) 찰스 W. 밀스, 『인종계약』, 65~68쪽.

는 유럽 근대의 탄생 및 부상과 더불어 등장한 다분히 근대적인 현상이자 이데올로기이고, 이는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흑인 노예제가 상징하는 백인의 세계사적 착취와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정치체제이자 권력구조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인종주의 국가였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였을 지도 모르겠다. 즉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의 변칙적 요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sup>35)</sup> 미국을 중심으로 인종주의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 Ⅲ. 미국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미국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도 서양사 일반의 인종주의 연구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로 대별하여 그간의 미국사 내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자.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와 본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 문제를 살피는 시금석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인종

염운옥은 인종이 미끄러지는 범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체적 특징과 문화적 관습을 분리하기 어렵고, 양자가 서로 조합되어 인종을 구성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은 생물학적 표지만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의 착종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35)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363~365쪽.

맥락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는 시선을 견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36)</sup> 이는 인종의 경계가 늘 명확했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통과하기(passing)는 이를 잘 보여준다. 통과하기는 흑인들이 백인으로 통과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물론 백인으로 통과하기를 시도했던 흑인들은 대개 백인 선조나 부모를 둔 혼혈 흑인이었으나, 이는 인종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종이 비결정적이고 사회 구성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sup>37)</sup>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들의 문화적 교차와 혼종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인종 개념의 가변성이나 인종 경계의 모호성은 유대인에 대한 구분 설정 사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대인은 1790년대에는 백인으로 인정되다가 이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184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에는 백인타자로 취급받았으며, 1920년대-1960년대에는 백인을 상징하는 코케이지언으로 다시 통합된다.<sup>38)</sup>

인종의 사회구성적 성격은 1908년에서 1913년 사이 흑인 최초로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던 잭 존슨(Jack Johnson)의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김정옥은 스포츠, 특히 복싱 경기 속에 내재된 인종적 함의의 복잡성을 꾸준히 살펴왔다. 그는 한 명의 운동선수를 흑인 사회집단들과의 관계를 고려에 두지 않은 채 인종집단 전체의 운명을 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자로 묘사할 경우 흑인의 피지배자로서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그 누구도 면제될 수 없는 인종주의의 엄혹성을 고발할 수 있는 반면, 바로 인종의 대표자란 용어에 부여된 계급적 성격과 사회적 경계에 따른 흑인 내부의

36) 염운옥, 『낙인찍힌 몸』, 9~10쪽.

37) 권은혜, 「인종의 배반인가 아니면 인종위계에 대한 도전의 승리인가: 인종통과(racial passing)를 시도한 20세기 초 미국의 혼혈인들」, 『미국사연구』 45, 2017, 1~29쪽.

38) 김연진, 「미국 유대인의 인종적 오디세이: 백인, '백인 타자,' 그리고 코케이지언」, 『미국사연구』 21, 2005, 175~204쪽.

균열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종이 선형적인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비균질적인 하나의 사회적 범주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존슨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이는 흑인 집단 내부의 비동질적인 계급 정체성이 인종 정체성과 연동하여 나타나던 만큼, 인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급과 같은 사회적 범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sup>39)</sup>

인종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분석은 백인성(whiteness) 연구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백인성 연구는 인종이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낸 범주, 특히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 낸 범주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인종문제를 열악한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흑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백인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백인성에 반역하는 것이 인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인종 반역자』라는 잡지가 1992년 가을 창간호에서 내건 구호이다. 편집인 이그나티예프(N. Ignatiev)와 존 가비(J. Garvey)는 오늘날 미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백인종을 폐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기에 백인종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끌어들이고서는 자체의 규칙에 따라 길러 내는” 일종의 단체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대체로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만일 그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바꿔 말해, 백인은 피부 빛깔 때문에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얻음으로써 백인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종을 인종주의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 자체가 사회적 차별의 산물”이라 보기 때문에, 그

39) 김정옥, 「영육에서 악한으로: 잭 존슨(Jack Johnson)과 흑인 사회, 1908-1913」, 『미국사연구』 45, 2017, 31~65쪽.



들은 “백인종이 존재하는 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은 실패할 운명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인종주의도 인종을 자연적 범주로, 생물학적 차이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sup>40)</sup> 백인성 연구는 인종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보다 강화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다.

## 2. 계급-젠더-인종의 교차성 연구

앞서 살펴본 백인성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중요성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인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이른바 교차성(intersectionality)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토니 모리슨(T. Morrison)은 『어둠 속의 움직임』(*Playing in the Dark*)을 통해 미국 문학에서 미국적인 것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백인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모리슨은 백인성에 대한 올곧은 인식은 그것의 대척점으로서의 흑인성(blackness)과 그 전제인 인종 담론을 분석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모리슨은 인종주의를 그 대상에 끼친 피해뿐만 아니라 그 주체에 가져온 결과-“인종 사이에 위계질서를 상정하고, 어떤 인종을 배척하며 또 어떤 인종이 연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 보는 관념, 이런 관념이 그것을 견지, 거부, 탐구하거나 변경하는 비흑인들에게 끼친 영향”-까지 포괄해서 이해하자고 제안했다. 모리슨의 문제제기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역사학분야에서는 이후 인종 담론의 초점을 흑인에서 백인으로 옮기며, 그 과정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미국인의 정체성에서 인종이 계급이나 젠더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비교적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인종-계

40)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342~343쪽.

급-젠더의 상호 연관과 이에 내재된 역학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 발전했다.<sup>41)</sup>

김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는 「인종과 성별 교차의 주류성 회복: 反차별이론, 페미니스트이론, 反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스트 비판」에서 인종과 성은 상호 연동되어있다는 것을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비유해 설득력있게 설명한 바 있다.<sup>42)</sup> 실제로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김지혜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제시한 범주 제조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sup>43)</sup>

<표 1> 범주제조기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성적지향	출신국가
여성	청소년	주부	불교인	이성애자	한국인
남성	청년	공무원	천주교인	동성애자	미국인
트랜스젠더남성	중년	농업노동자	개신교인	양성애자	일본인
트랜스젠더여성	노인	교수	무슬림	무성애자	예멘인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43쪽에서 인용함.

미국사 연구 내부에서도, 1980년대 새로운 노동사가 등장하면서, 1960

41) 토니 모리슨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했다.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343~345쪽; 토니 모리슨은 인종차별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질서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리슨의 작품을 분석한 다음을 참고하라. 신진범, 「토니 모리슨의 문학작품에 투영된 1960년대 미국」, 『미국사연구』 28, 2008, 129~147쪽.

42) 크렌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K.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pp.139~167.

43)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42~43쪽.

년대 좌파가 주도했던 계급 중심의 연구를 인종이나 젠더와 연동하여 설명할 때, 인종 차별의 속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간파하기 시작했다.<sup>44)</sup> 이는 인종적 정체성이 다른 사회적 경계들에 매개되는 한 인종 위계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형적인 사회적 구조가 아니며, 미국사회의 항상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인종주의가 실은 문화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변적인 하나의 문화적 과정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인종주의는 균열을 가진 과정으로서의 문화적 행위를 통한 지속적인 재구성에 의해서만 가변적으로 그리고 불안정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sup>45)</sup> 따라서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주들, 특히 계급이나 젠더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856년 발생한 도망 노예였던 마가렛 가너(Magaret Garner) 사건은 이런 인식의 중요한 사례로 보인다. 이 사건은 가너가 주인의 추격 끝에 28개월 된 딸 메리를 살해한 사건인데, 이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종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19세기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가 인종-젠더-계급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가렛 가너 사건은 흑인 여성의 모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노예제 폐지 논란을 재점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고, 이후 교차성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sup>46)</sup> 김인선은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나 인종 간 성관계에 내재된 차별의 정치학을 다루면서 교차성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전자는 이중의 억압을 받던 최하층 흑인 여성 노예들, 즉 자신을 능욕하려 한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한 해리엇 제이콥스(Harriet Jacobs), 자신을 성폭

44)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374~375쪽.

45) 김정옥, 「잭 존슨(Jack Johnson)과 가변적인 백인의 경계, 1905-1913」, 『미국사 연구』 48, 2018, 207~247쪽, 특히 208~210쪽, 241쪽.

46) 김인선, 「흑인 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3쪽, 31쪽.

행한 주인을 살해한 노예 실리아(Celia, a Slave), 주인과 노예사냥꾼의 추격을 받던 끝에 28개월 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한 마가렛 가너 사레를 통해 인종과 젠더가 착종된 구조적 차별에 대해 흑인 여성들이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47)</sup> 후자는 1945년 11월 2일 이른 새벽 미시시피 주 로렐에서 발생한 흑인 남성 윌리 맥기(Willie McGee)의 백인 주부인 윌렛 호킨스(Willette Hawkins)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드러난 성과 차별의 정치학에서 비롯한다. 이 연구는 그간 흑인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온 인종 및 젠더 억압의 논의를 흑인 남성으로 확장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본 사건은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관계만큼이나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 사이에 성적 착취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맥기가 아니라 호킨스 부인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남부사회에서 무성적 존재로 숭상되던 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성적 주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야수가 아닌 수동적이고 연약한 흑인 남성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인선이 발굴한 역사적 기록은 흑인 남성에게 대한 성적 착취의 형태가 실로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했음을 제시한다. 노예제 이래 흑인 남성이 경험한 성적 착취는 남부의 흑인 강간자 이미지를 교정하면서 젠더 통념을 뛰어넘어 이들이 대면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의 정형화를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남부사와 인종주의를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sup>48)</sup>

이춘입은 미국에서의 68 운동에 대한 해석의 초점을 신좌파의 반전운동에서 그것과 흑인 민권운동의 결합으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간 미국의 68은 신좌파 학생 운동(SDS, Student for

47) 김인선,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2쪽, 30쪽.

48) 김인선, 「인종 간 성관계와 성의 정치학」, 175쪽, 204쪽.

a Democratic Society)의 측면만 부각되었지만, 과소평가된 흑인 학생 조직인 SAS(Student Afro-American Society)의 역할과 거의 망각된 상태로 오래 이어진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설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9)</sup> 이는 인종과 성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인식은 다른 소수자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 3. 소수 민족, 백인타자, 그리고 이민 정책

페기 매킨토시(Peggy McIntish)는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많은 남성 동료들이 정작 여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에 착안하여 백인들이 누리는 일상적 특권 4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sup>50)</sup> 그 내용의 일부이다.

- 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 인종주의를 의식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 내가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색을 가지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 내가 속한 인종 집단을 대표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없다.
- 내가 책임자를 부르면 거의 틀림없이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나올 것

49) 이춘입, 「Occupy Columbia! 컬럼비아 대학 점거 사건으로 다시 보는 '미국 68'」, 『미국사연구』 49, 2019, 199~237쪽, 특히 200쪽, 230쪽; 이춘입은 흑인 저항 운동에서의 폭력과 비폭력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다음의 연구를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춘입, 「휴이 뉴튼과 엘드리지 클리버: 블랙팬더당, 폭력과 비폭력 사이」, 『미국사연구』 44, 2016, 103~137쪽.

50) 맥킨토시의 주장은 다음을 보라. P. McIntosh,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Peace & Freedom*, July/August 1989, pp. 10~12.

이다.

- 나는 내 외모, 행동거지, 냄새로 나의 인종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신경을 쓸 일이 없다.
-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이 수용되고 허용되는지 질문하지 않고 많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 내가 리더로서 신용이 낮다면 그 이유가 인종 때문은 아닐 것이다.<sup>51)</sup>

이러한 특권과 그에 의한 차별은 국적, 성별, 장애, 나이, 종교, 학력, 학벌, 지역, 성적지향 등 수많은 범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연히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차원의 집단에 속하게 되고, 이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최악의 경우는 수많은 범주들의 가장 아래에 속한 이들도이다. 이들은 동시에,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유대인이나 멕시코인들 같은 백인타자나 아시아계 이민자와 같은 소수 민족들의 경우, 앞서 제시한 범주 제조기를 대입해보면 여러 차원에서 차별을 한꺼번에 받을 소지가 큰 사람들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다. 미국에서 인종주의로 인한 차별 문제는 주로 흑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비서유럽 출신의 유대인이나 라틴계 이민자, 그리고 혈통이 가장 먼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겪는 인종주의적 차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현저하게 적다.

백인 타자에 대한 연구는 김연진의 연구가 거의 독보적이다. 김연진은 『미국사연구』 창간호(1993)에서 이민자들은 입국 이후 동화 과정을 거치지만, 고유의 의식과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1970

---

51)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29쪽.

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에 등장한 신소수민족론과 상황적 소수민족론을 분석한 이후,<sup>52)</sup> 소수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백인이면서 백인이 아닌 백인같은 타자들인 유대인과 멕시코인에 대한 연구는 미국사 연구 분야에서 백인 타자 연구로는 매우 귀중한 성과라고 판단된다.<sup>53)</sup> 이런 연구들은 미국에서 인종이 민족이나 국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과 착종되고, 미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인종 간 경계가 가변적으로 이해되고 규정되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인종의 사회구성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다룬 연구는 미국사 연구 내부에서 의외로 드물다. 연구 대상도 중국과 일본에 치우쳐 있으며, 특히 한인 이주자나 인디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빈약한 현실이다.<sup>54)</sup>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인종주의가 갖는 성격, 즉 내부와 외부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 장치이자 정책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미국인들의

52) 김연진, 「신 소수민족론(New Ethnicity): 백인소수민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국사연구』 창간호, 1993, 143~158쪽, 특히 144쪽.

53) 김연진, 「미국 유대인의 인종적 오디세이」; 김연진, 「인종에서 언어로: 미국이민 위원회와 유대인 분류논쟁, 그리고 타협」, 『미국사연구』 35, 2017, 217~251쪽; 김연진, 「멕시코계 미국인과 인종적 정체성, 그리고 딜레마」, 『미국사연구』 38, 2013, 73~104쪽; 김연진, 「비합법 멕시코 이민, 국가 안보, 그리고 '오퍼레이션 웨트백(Operation Wetnack)」, 『미국사연구』 50, 2019, 167~196쪽.

54)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 독립가능성 제시와 그것의 번복문제: 해리스 총독(1913-1921)과 우드총독(1921-1927) 지배시기」, 『미국사연구』 5, 1997, 71~106쪽; 김남현, 「초기 중국인 사회조직체 연구」, 『미국사연구』 6, 1997, 27~58쪽; 김남현, 「중국이민의 미국이주: 원인과 제도」, 『미국사연구』 11, 2000, 65~92쪽;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289~318쪽; 김봉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강제격리로 본 미국인의 반일본인 감정, 1882-1942」, 『미국사연구』 6, 1997, 137~160쪽; 양홍석, 「19세기 말과 20세기초 미국 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미국사연구』 20, 2004, 59~87쪽.

인종관이 문명과 야만의 구도 속에서 점철된 복합적이고 구성적인 인종 개념에 기댄 것이었음을 알려주었다.

백인 타자나 소수 국적자나 민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민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인종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속성에 기댄 개념임을 감안하면 이민은 생물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sup>55)</sup> 미국 이민사 연구는 인종주의가 이념에만 집중할 경우 간과하기 쉬운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주로 다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의 그것이 인종주의적 차별 의식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교육, 결혼, 언어, 질병 등 다양한 삶의 범주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56)</sup> 이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은폐된 미국주의의 실현을 위한 배제와 차별의 인종주의적 구분짓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55)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148~150쪽.

56) 손영호, 「미국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1882-1924」, 『미국사연구』 4, 1996, 165~202쪽; 손영호, 「미국 이민자들과 학교 교육」, 『미국사연구』 9, 1999, 225~250쪽; 손영호, 「달링행위원회의 이민보고서: 내용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미국사연구』 20, 2004, 89~117쪽; 신지혜, 「20세기 초 엘리스 섬의 이민 아동과 질병」, 『미국사연구』 47, 2018, 75~110쪽; 김연진, 「9/11은 전환점이었는가?: 9/11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정책」, 『미국사연구』 35, 2012, 235~268쪽; 권은혜, 「인종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1880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서부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결혼한 백인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4, 2011, 85~114쪽; 권은혜, 「미국 내전 이후 인종 간 결혼 규제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 재건기 남부의 법정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3, 2016, 119~149쪽;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반기 이민국의 자율성 확대와 이민자들」, 『미국사연구』 43, 2016, 185~215쪽; 오영인, 「미국의 언어정책과 정체성 문제: 21세기 전환기 이중언어 교육을 둘러싼 담론적 각축」, 『미국사연구』 41, 2015, 151~190쪽; 오영인, 「미국 이중언어 교육정책과 이민자들: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과 1970년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5, 2012, 161~190쪽.



이민 문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동해서 보면 더욱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다문화주의는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 보장에만 치우쳐 정치적·경제적 평등과 재분배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먼 이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담론으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이 간과하는 이주 공동체 내부의 비균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계급, 젠더,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이런 점에서 이민과 연계된 다문화주의는 변형된 인종주의에 불과하며, 이민과 다문화주의는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흑인-노예제-남부

인종주의를 서구의 근대적 기획으로서 백인우월주의에 천착한 유색 인종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정치체제이자 이데올로기로 보고,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였다는 점에서 흑인-노예제-남부는 미국의 인종주의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일찍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그 깊이와 양도 많다. 남부에서 전개된 노예제는 비록 고대 노예제적 성격과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지만,<sup>58)</sup> 노예제는 남부 경제 성장의 주요 전제로서 자본주의와 인종주의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사가 스벤 베커트(Sven Beckert)는 『면화의 제국』(*Empire of Cotton*, 2014)에서 노예제는 자본주의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장된 제도였고, 노예노동은 자본주의 발달에 부차적

57) 염운옥, 『낙인찍힌 몸』, 370~375쪽.

58) 김형인, 「미국의 노예제도: 수정주의의 성과」, 『미국사연구』 4, 1996, 97~134쪽, 특히 134쪽.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요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sup>59)</sup> 기독교 담론과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당시 지식인들의 우월의식은 인종주의와 결부된 노예제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당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공적 안전과 국가의 유지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오로지 그들만의 것이었다는 점을 폭로해주었다. 또한 남부가 대농장주에 의한 노예제 사회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비균질적인 다양한 사회구성과 이념을 가졌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이는 그간 남부에만 집중되어온 노예제 또는 인종주의의 문제가, 설령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북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노동자로서의 흑인 문제를 더욱 밀도 있게 살펴야할 사안임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본다.<sup>60)</sup>

노예제 폐지 운동이나 인민주의도 미국 인종주의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초창기 노예제 폐지 운동은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과 같은 걸출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전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실패했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농민 소외를 해체하기 위해 흑백 농민의 단합을 도모하면서 진행되었던 인민주의 운동 역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미국 사회에 내재된 인종적 편견과 정치적 난맥상이 상호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인종주의가 갖는 구조적 불평등의 항구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부여해주었다.<sup>61)</sup>

59) 염운옥, 『낙인찍힌 몸』, 111~112쪽.

60) 이영효, 「미국 혁명기 노예제 담론」, 『미국사연구』 48, 2018, 105~146쪽, 특히 105~108쪽, 136~137쪽; 이영효, 「버니지아 농장주의 일상생활: 윌리엄 버드 2세(William Byrd II)의 삶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1, 2005, 1~34쪽; 이영효, 「미국 '남부' 이미지의 허구와 실제」, 『미국사연구』 12, 2000, 1~32쪽; 이영효, 「구남부의 경제와 사회구성」, 『미국사연구』 4, 1996, 13~36쪽; 공혜정, 「신남부의 인종관계에 대한 일연구: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 1995, 165~190쪽.

61) 손세호, 「노예폐지론의 인종·성·계급」; 손세호, 「영미 노예제폐지운동과 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인종주의 철폐 흐름을 패배의 기록으로서만 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인선의 연구는 이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김인선은 미국 노예제 역사를 생각할 때,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보다 1855년 노예 실리아 사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판결은 1855년 미주리 주 캘러웨이 카운티에서 노예 실리아가 5년간 성폭행을 당하던 끝에 백인 남성 로버트 뉴섬(Robert Newsom)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리아 사건을 단순히 한 여자노예의 처절한 삶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실리아 판결은 일상의 억압에 저항하며 여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저항의지를 온몸으로 실천한 흑인 여성의 흔적을 오롯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기록에서 배제된 흑인 여성들의 역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인 저항을 수행해온 발자취를 드러내준다.<sup>62)</sup> 그러므로 실리아 사건은 여자 노예의 억압적 현실을 드러내는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저항의 기록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새겨야 할 시선이라고 본다. 황혜성이 인종주의 차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통스런 과거와의 대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63)</sup> 이는 파농(F. Fanon)이 오래 전에 주장한 바, 흑인들의 진정한 탈소외는 인종적 자각, 즉 열등성의 내면화, 또는 그보다 더한 열등성의 전염에 의한 문제를 자각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

엄 로이든 개리슨, 『미국사연구』 18, 2003, 23~52쪽; 허현, 「노예제폐지운동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과 논쟁 재고: 개리슨 주의 대 정치적 노예제 폐지론」, 『미국사연구』 44, 2016, 29~65쪽; 허현, 「오하이오 휘그당의 몰락의 서곡: 노예제폐지론에 대한 배척과 그 정치적 유산, 1832-1840」, 『미국사연구』 40, 2014, 71~106쪽; 박진빈, 「신남부 인민주의의 한계」, 『미국사연구』 5, 1997, 27~48쪽.

62) 김인선, 「흑인 노예의 주인 살해와 대항 폭력」.

63) 황혜성, 「국립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221쪽.

사실과도 연동되는 사안이다.<sup>64)</sup> 정리하자면, 무엇보다 우리는 고통스런 과거를 이해함에 있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고, 착취의 사슬과 지배의 족쇄를 끊어내는 것은 피해 주체의 능동적 행위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피해 주체의 자각과 행동은 치유로 가는 본질적 토대이다. 더불어 필자는 치유를 사업으로 보거나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표명하지 않으려는 은폐 시도는 타자들의 아픈 삶을 이용한 사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는 정의나 치유를 말하면서 제 멋대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소중히 인식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언제나 피해자의 시선에서 모든 일은 출발해야만 한다.

#### IV. 학문적 · 실천적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필자는 3장에서 미국사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사연구』 창간호(1993)부터 50집(2019)까지 게재한 인종 관련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 6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일종의 메타분석을 시도했다. 이런 연구들이 미국 인종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미국사 연구자들이 수행해온 인종관련 연구는 미국의 정체와 인종주의 이해에 있어 그 학술적 기여가 적지 않고, 그런 노력은 중단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좀 더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미국과 인종주의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살피면서 실천

64)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11쪽.

적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인종주의 연구에서 더욱 부각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해보기로 한다.

먼저, 일종의 트랜스내셔널 역사쓰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을 대상으로 삼은 기존의 인종 관련 연구들을 살펴면서, 아쉬웠던 점은 주제나 시선이 미국 사회 내부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 내부 역학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이 상호 연동되어 미국 인종 개념 형성과 인종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만큼, 미국에서의 인종주의를 논함에 있어 지구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신체적 특징이 자연적 사실이라면, 그래서 자연적 사실이 사회적 범주로 전환되는 기제로서 차이=우열 등식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인종 문제에 접근해야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점증하고 있는 반세계화와 인종주의의 문제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인종주의에 대한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접근은 서양 근대성의 실체를 밝히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다. 서구, 특히 근대는 주체와 타자의 몸의 차이를 인종 개념이라는 특권화된 범주로 고정시키고 차별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시점이고, 타자의 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인종주의야말로 이성과 합리성의 최상의 가치로 삼는 서구 근대성의 실체이기 때문이다.<sup>65)</sup> 인종주의는 “낙인찍히고 배제당한 ‘인종화된 몸’의 역사를 통해 서구 근대가 표상하는 이성, 자유, 평등, 생명 같은 단단한 명사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반 위에서 서 있는지를 폭로하고, 이로써 존엄과 평등처럼 자명한 진리이지만 선언과 당위에 머물렀을 때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가치”<sup>66)</sup>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연구

65) 염운옥, 「타자의 몸: 근대성과 인종주의」, 『역사와 문화』 17, 2009, 134~137쪽.

의 기제인 것이다.

‘서구-근대-세계사적 맥락-인종주의’의 연결은 국가 자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가 단순히 이데올로기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창출하는 하나의 정치체제였고, 이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인종 관련 제도나 정책의 주된 실행자는 국가였다. 따라서 국가 인종주의(national racism) 또는 생물학적 국가주의(biological statism)의 틀 안에서 인종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통상 공공복리를 내세우며, 정책을 펼친다. 즉, 국가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언제나 개인의 복지보다 공동체의 이익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누군가는 이득의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손실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몫일 가능성이 높다. 백인종에 대하여 유색인종, 국내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여타의 다른 이들이 바로 손실의 당사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복리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필자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 말이다.<sup>67)</sup>

이에 답을 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라면 백인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68)</sup> 정책 실행자로서의 국가와 그 행위 주체로서의 백인의 관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도적 인종주의(in-

66) 염운옥, 『낙인찍힌 몸』, 7쪽.

67)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적 인종주의의 토대가 된 우생학과 국가의 관계를 시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호연,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 2019, 269~310쪽.

68) 김진웅, 「미국인의 의미와 성격」, 『미국사연구』 5, 1997, 163~201쪽; 김진희, 「백인인의 의무: 19세기 미국 오리엔탈리즘과 미국의 정체성」, 『미국사연구』 19, 2004, 23~49쪽.

stitutional racism)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즉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차원의 제도적 인종주의가 현대 국가 제도 속에 합법적으로 기입되어있고, 그 바탕에 백인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9)</sup> 미국의 사회학자 골드버그(David T. Goldberg)가 근대 국가를 기본적으로 인종국가(Racial State)라고 규정한 이유이리라.<sup>70)</sup> 제도적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국가 정책으로서의 이민이나 다문화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유효할 것이고, 인종주의가 구조적 문제임을 밝혀줌으로써 일상 속에서 차이=차별이 내면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인종주의 연구에서 과학과 인종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 근대성과 착종된 인종주의의 기원, 여러 인종주의 사이의 구별, 그리고 인종주의의 현재성을 밝히는데 과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이른바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의 영향력이 컸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생국가라

69) 제도적 인종주의는 1960년대 미국 흑인민권운동에서 유래했다. 이는 콰메 튜레(Kwame Ture)로 이름이 알려진 스토클리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과 찰스 해밀턴(Charles Hamilton)이 1967년에 공저한 『블랙 파워』(Black Power)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백인의 기성권력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흑인의 정치활동을 주장한 책이다. 저자들은 미국 사회에 인종주의가 만연해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은 관료적 절차를 통해 인종주의적 결과를 낳는 태도와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적 인종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제도적 인종주의 개념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내부 식민주주의에 거주하는 식민지인에 다름없다는 통찰을 제시했고, 인종주의를 개인적 인종차별이나 심리적·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염운옥 「잃어버린 기회? - 로런스 사건과 맥퍼슨 보고서, 제도적 인종주의-」, 『영국연구』 32, 2014, 257~280쪽, 특히 261쪽.

70) 골드버그의 주장은 다음을 보라. David T. Goldberg, *The Racial State*, Oxford: Blackwell, 2002.

고 부르거나, 우생학(eugenics)이 가장 유행했던 나라로서 미국을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71)</sup> 더욱이 1994년 흑인의 열등성을 지능과 연관하여 설명했던 『종형 곡선』(*The Bell Curve*)<sup>72)</sup>이 출간되어 큰 파문이 일었고, 193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인종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기금(Pioneer Fund)<sup>73)</sup>은 여전히 건재하다.

흑인-남부-노예에 집중했던 연구 시선을 대상과 지역을 확장하여 북부, 노동계급, 소수자, 그리고 아시아계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종의 비균질성과 특정 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계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급-인종-성의 연결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의 교차성 연구도 아직은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대항담론, 즉 패배의 기록으로서가 아닌 저항과 투쟁의 기억으로서의 인종차별 피해자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아픔 치유를 위한 공동의 기억으로 승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인종주의적 야만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맥락이 실종되거나 담론이 미약하면 사실 해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쉽게도, 미국사 내부에서 인종 관련 이론과 담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노력을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메타분석을 시도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료 연구자들의 수고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질적 차원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필자

71)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아침이슬, 2009, 131~192쪽.

72) R. Herrnstein & C. Murray, *The Bell Curve*, New York: Free Press, 1994.

73) William H. Tucker, *The Funding of Scientific Racism: Wiccliffe Draper and the Pioneer Fund*, Urbana &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2002; 김호연, 「미국에서의 과학, 민간단체의 후원, 그리고 이민제한의 삼각동맹-파이오니어 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8, 2016, 199~225쪽.



는 동료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야말로 지적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고독한 연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응원과 존경을 표현하는 환대의 노력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열려있는 협동을 해야만 한다.

## V.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종주의, 그리고 우리

우리는 인종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밝힘과 동시에 인종주의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학사학회 회장을 지낸 낸시 톰스(Nancy Tomes)는 『세균의 복음』에서 이른바 ‘병균사회주의’와 ‘질병의 사술’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병균사회주의란 병균이 인종, 성별 또는 계급 등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며, 따라서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병균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사회의 약자가 본다. 그래서 전염병의 유행은 단순한 위생개혁을 넘어 노동환경 개선이나 사회개혁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군의 사람들은 병균의 원인을 해소하고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병균 발원자나 특정 계층, 지역(이라고 믿는) 등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톰스는 질병의 사술이라고 불렀다.<sup>74)</sup> 톰스의 두 개념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의 새 질서를 성찰적으로 고민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과연 우리는 협력과 연대를 새로운 질서의 모티브로 삼을 것인가, 아

74) 낸시 톰스, 이춘입 옮김, 『세균의 복음』, 푸른역사, 2019.

니면 배척과 차별의 낡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종주의와 이를 시나브로 내면화하여 바이러스 보균자로서의 외국인, 난민, 이주노동자, 중국 동포, 결혼 이주 여성 등을 타자화하고 천시하는 우리 자신의 인종주의라는 두 개의 전선과 맞서야 할 것이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그것이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생태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sup>75)</sup> 이는 지금의 위기가, 그것이 의료 체계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그 주요 원인들이 오래된 자본주의 체계 내부의 근본적 문제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질 수 있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인 밀스는 인종계약(racial contract)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조적 문제로서의 인종주의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전개되는 까닭에 대해 주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밀스가 말하는 인종계약은 경제적으로 누가 무엇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몰수 계약이고, 서구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비백인 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필요에서 등장한 일종의 정치 체제이다. 이는 인종주의가 그 자체로 공식적·비공식적 지배와 사회경제적 특권과 특정한 규범들, 즉 물질적 부와 기회, 혜택과 부담, 권리와 의무를 차별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권력 구조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서구 근대의 정치질서는 절대주의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대의제나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나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종주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밀스는 주장한다.<sup>76)</sup> 이는 인종주의가 서구 근대가 형성한 오래된 권력체계

75) [포스트 코로나]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다 무너진다” | 코로나19, 신인류 시대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2020.04.20.  
<https://www.youtube.com/watch?v=AY6zCCt5Swk>.

76) 찰스 W. 밀즈, 『인종계약』, 25쪽, 252~253쪽.

로서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좀 더 표면적이고, 강렬하게 등장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인종주의가 백인-서구-유럽이 주도한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충격의 방향이나 결과도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질서 내부의 구조적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인 이상, 이는 다양한 차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다문화 국가로 불린지 오래고,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간 서구의 문제로만 인식했을 법한 인종주의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회의 야만은 약자 멸시에 담겨 있다. 야만은 문명의 반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광기이자 증오이다. 광기와 증오는 불안과 공포를 양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런 비참함이 조직되고 그것이 지속하는 사회라면, 희망은 없다. 서구 학문의 자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성찰을 도모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조와 존재를 향해 더 애정을 가지면서 치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타자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낡은 질서를 전복시키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휘발성이 강하고 선언적인 언어의 유희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非정상상태들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질서를 위한 분석과 질문의 시작으로 인종주의만큼 시의 적절한 주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과연 우리는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야만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견

과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다음 편에서는 이를 주된 질문으로 삼을 것이다.

(2020.05.07. 투고 / 2020.07.25. 심사완료 / 2020.07.25. 게재확정)

[Abstract]

Racism and Covid-19 I

– Focusing on the trend of racism research in American  
Academy of History –

Kim, H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is to emphasize that racism, which is deepening and amplifying in our society, is our problem. Second, it aims to gain implications from the existing domestic racist research achievements and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more active academic and practical discourse expansion. To this end, this article attempts to meta analyze achievements of researchers who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racism of Western and United States. In Chapter 1,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acism research, in Chapter 2, the fact that racism was an ideology and a political system as a modern planning in Western, in Chapter 3 and 4,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rom racism research on the United States and future research theme, and in chapter 5, we will talk about what we will do and how we will fight racism.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thank researchers for their intellectual responsibility to conduct more active research, and to create an opportunity to ponder everyone's good life.

□ Keyword

America, Race, Racism, Modern, Ideology, Political System, Corona Virus

[참고문헌]

Mosse, George L., *Toward the Final Solution: A History of European Racism*, New York: Howard Fertig, 1978.

Frederickson, George M., *Racism: A Short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Crenshaw, K.,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pp.139-167.

MacMaster, Neil, *Racism in Europe, 1870-2000*, New York: Palgrave, 2001.

McIntosh, P.,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Peace & Freedom* (July/August 1989), pp.10-12.

공혜정, 「신남부의 인종관계에 대한 일연구: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 1995.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 독립가능성 제시와 그것의 반복문제: 해리슨 총독(1913-1921)과 우드총독(1921-1927) 지배시기」, 『미국사연구』 5, 1997.

권은혜, 「미국 내전 이후 인종 간 결혼 규제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 재건기 남부의 법정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3, 2016.

권은혜, 「인종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1880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서부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결혼한 백인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4, 2011.

권은혜, 「인종의 배반인가 아니면 인종위계에 대한 도전의 승리인가: 인종 통과(racial passing)를 시도한 20세기 초 미국의 혼혈인들」, 『미국사

- 연구』 45, 2017.
- 김남현, 「중국이민의 미국이주: 원인과 제도」, 『미국사연구』 11, 2000.
- 김남현, 「초기 중국인 사회조직체 연구」, 『미국사연구』 6, 1997.
- 김미현, 「모녀헌 보고서에 나타난 흑인 어머니와 흑인 여성 작가 작품에 나타난 흑인 어머니 비교」, 『미국사연구』 19, 2004.
- 김봉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강제격리로 본 미국인의 반일본인 감정, 1882-1942」, 『미국사연구』 6, 1997.
- 김연진, 「19세기말·20세기 초 미국 내 중국 이민 여성과 가족」, 『미국사연구』 15, 2002.
- 김연진, 「9/11은 전환점이었는가?: 9/11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정책」, 『미국사연구』 35, 2012.
- 김연진, 「멕시코계 미국인과 인종적 정체성, 그리고 딜레마」, 『미국사연구』 38, 2013.
- 김연진, 「미국 유대인의 인종적 오디세이: 백인, '백인 타자,' 그리고 코케 이지언」, 『미국사연구』 21, 2005.
- 김연진, 「비합법 멕시코 이민, 국가 안보, 그리고 '오퍼레이션 윌벡(Operation Wetnack)」, 『미국사연구』 50, 2019.
- 김연진, 「신 소수민족론(New Ethnicity): 백인소수민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국사연구』 창간호, 1993.
- 김연진, 「인종에서 언어로: 미국이민위원회와 유대인 분류논쟁, 그리고 타협」, 『미국사연구』 35, 2017.
-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미국사연구』 18, 2003.
- 김인선,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1, 2015.
- 김인선, 「인종 간 상관계과 성의 정치학: 윌리 맥기 사건(1945-1951)을 중

- 심으로, 『미국사연구』 47, 2018.
- 김인선, 「흑인 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1856년 마가렛 가너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 2014.
- 김인선, 「흑인 노예의 주인 살해와 대항폭력: 1855년 노예 실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45, 2017.
- 김정욱, 「영국에서 악한으로: 잭 존슨(Jack Johnson)과 흑인 사회, 1908-1913」, 『미국사연구』 45, 2017.
- 김정욱, 「잭 존슨(Jack Johnson)과 가변적인 백인의 경계, 1905-1913」, 『미국사연구』 48, 2018.
-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 김진웅, 「'미국인'의 의미와 성격」, 『미국사연구』 5, 1997.
- 김진희, 「백인의 의무: 19세기 미국 오리엔탈리즘과 미국의 정체성」, 『미국사연구』 19, 2004.
- 김형인, 「미국 흑백 인종주의의 특성과 변천 - 노예제도부터 민권운동까지 -」, 『서양사론』 70, 2001.
- 김형인, 「미국의 노예제도: 수정주의의 성과」, 『미국사연구』 4, 1996.
-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 김호연,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폭력과 그 아픔에 관한 이야기」, 『역사연구』 38, 2020.
- 김호연,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동국사학』 66, 2019.
-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아침이슬, 2009.
-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인종주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 역사비평사, 2019.
- 넨시 톱스, 이춘입 옮김, 『세균의 복음』, 푸른역사, 2019.
- 박은진, 「아프리카 식민운동과 미국 개신교회의 협력관계의 형성, 1817-1830」, 『미국사연구』 11, 2000.
- 박진빈, 「신남부 인민주의의 한계」, 『미국사연구』 5, 1997.
- 박진빈, 「인종주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역사비평』 129, 2019.
-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일조각, 2011.
- 배영수, 「인종주의」,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손세호, 「노예폐지론의 인종·성·계급: 해석의 역사」, 『미국사연구』 10, 1999.
- 손세호, 「영미 노예제폐지운동과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미국사연구』 18, 2003.
- 손세호, 「주요 노예제폐지론의 헌법해석: 개리슨, 필립, 더글러스」, 『미국사연구』 35, 2012.
- 손세호, 「할리우드 영화와 흑인 인종 문제-그리피스(D. W. Griffith)의 <국가의 탄생>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50, 2019.
- 손영호, 「딜링행위원회의 이민보고서: 내용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미국사연구』 20, 2004.
- 손영호, 「미국 이민자들과 학교 교육」, 『미국사연구』 9, 1999.
- 손영호, 「미국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1882-1924」, 『미국사연구』 4, 1996.
- 신지혜, 「20세기 초 엘리스 섬의 이민 아동과 질병」, 『미국사연구』 47, 2018.
- 신진범, 「토니 모리슨의 문학작품에 투영된 1960년대 미국」, 『미국사연구』 28, 2008.
- 양홍석,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미국 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미

- 국사연구』 20, 2004.
- 염운옥 「잃어버린 기회? - 로런스 사건과 맥퍼슨 보고서, 제도적 인종주의-」, 『영국연구』 32, 2014.
- 염운옥, 「타자의 몸: 근대성과 인종주의」, 『역사와 문화』 17, 2009.
-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 오영인, 「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 확대와 이민자들」, 『미국사연구』 43, 2016.
- 오영인, 「미국의 언어정책과 정체성 문제: 21세기 전환기 이중 언어 교육을 둘러싼 담론적 각축」, 『미국사연구』 41, 2015.
- 오영인, 『백인 지배담론 가로지르기: 미 식민지 시기 기간계약노예제도 (Indentured Servitude System)에 대한 소고』, 『미국사연구』 49, 2019.
- 윤영휘, 「조나단 에드워즈의 노예제에 대한 시각 고찰, 1730-1780」, 『미국사연구』 38, 2013.
- 이영효, 「구남부의 경제와 사회구성」, 『미국사연구』 4, 1996.
- 이영효, 「남북전쟁 이전 미국흑인들의 국외 이주운동」, 『미국사연구』 44, 2016.
- 이영효, 「미국 ‘남부’ 이미지의 허구와 실제」, 『미국사연구』 12, 2000.
- 이영효, 「미국 혁명기 노예제 담론」, 『미국사연구』 48, 2018.
- 이영효, 「버니지아 농장주의 일상생활: 윌리엄 버드 2세(William Byrd II)의 삶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1, 2005.
- 이춘입, 「Occupy Columbia! 컬럼비아 대학 점거 사건으로 다시보는 ‘미국 68」, 『미국사연구』 49, 2019.
- 이춘입, 「휴이 뉴튼과 엘드리지 클리버: 블랙팬더당, 폭력과 비폭력 사이」, 『미국사연구』 44, 2016.

- 조너선 마크스, 고현석 옮김,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이음, 2017.
- 조지형, 「'평등'의 언어와 인종차별의 정치: 브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17, 2003.
- 찰스 W. 밀스, 정범진 옮김, 『인종계약』, 아침이슬, 2006.
- 크리스티앙 들라캥파뉴, 하정희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예지, 2013.
-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11.
- 허현, 「노예제폐지운동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과 논쟁 재고: 개리슨 주의 대 정치적 노예제 폐지론」, 『미국사연구』 44, 2016.
- 허현, 「오하이오 휘그당의 몰락의 서곡: 노예제폐지론에 대한 배척과 그 정치적 유산, 1832-1840」, 『미국사연구』 40, 2014.
- 황영순, 「미국 흑인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미국사연구』 34, 2011.
- 황혜성, 「가려진 목소리: 할렘르네상스의 흑인 여성작가들」, 『미국사연구』 11, 2000.
- 황혜성, 「국립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포스트식민박물관의 음영(陰影)」, 『미국사연구』 43, 2016.
- 황혜성, 「다시 보는 부커 워싱턴과 윌리엄 두보이즈: 흑인 신보수주의의 등장에 비추어 본 워싱턴 인종정책」, 『미국사연구』 44, 2016.
- 황혜성,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 그들은 영원한 라이벌인가?」, 『미국사연구』 14, 2001.

